

한국 전통치마의 착용 실루엣 연구

이수현[†] · 조우현*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 조교수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Silhouette of Korean Traditional Skirt, CHIMA

Su-Hyun Lee · Woo-Hyun Cho*
Assistant, DPT. of FD & T in In-ha Univ.
Prof., DPT. of FD & T in In-ha Univ.*
(2004. 2. 2. 접수)

Abstract

In the designing stage, the HANBOK CHIMA is created using a flat pattern with linear shapes. However, when worn, the skirt creates a fluid and organic silhouette. According to the wearing method(wrapping), HANBOK CHIMA can create various shapes and movements.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skirt, It is more effective in revealing the wearer's sense of beauty. The method of wrapping the skirt from the rear is a suitable way of wearing the garment in accord with the Korean ON-DOL(온돌) culture and it creates mystique eroticism.

We can divide the silhouettes according to six different period of time. The silhouette of HANBOK CHIMA is affected by the following elements: length, width, pleats, textures and the usage of underwear. [1. Koguryo (5C~6C) - The first Tent silhouette. 2. The South Dynasty Silla (7C~8C) - The second Tent silhouette. 3. Kyoryo dynasty (14C) - Cylinder silhouette. 4. The first Chosun dynasty (late 14C~17C) - Bell silhouette and Cylinder silhouette. 5. The second Chosun dynasty (mid 18C~mid 19C) - Bell silhouette and Barrel silhouette. 6. The third Chosun dynasty (late 19C~the beginning of 20C) - Tent, Cylinder and Bell silhouette.]

Key Words: HANBOK CHIMA(한복 치마), Tent silhouette(원뿔대형), Cylinder silhouette(원통형), Bell silhouette(종형), Barrel silhouette(항아리형)

I. 서론

한국 복식사를 살펴보면 치마도 다른 의복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행현상을 만들었다. 고구려의 주름치마, 남국신라의 표상(表裳)과

내상(內裳), 고려의 황상(黃裳)과 선군(旋裙), 조선의 적마, 초마, 추마, 치마를 거쳐 현재의 치마까지 그 명칭 뿐 아니라 형태와 착용 방법, 착장 실루엣 등의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곧 시대의 유행현상을 만들었으며 당시대인의 미의식의 표출이었고 사회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한국 전통 치마에 관한 선행연구 중 “女子치마의 歷史的 考察”¹⁾, “우리나라 여자 치마의 時代的 高찰”²⁾, “치마의 變遷 - 三國時代에서 朝鮮時代까지”³⁾,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⁴⁾, “조선시대 치마에 관한 연구”⁵⁾

[†]Corresponding author ; Su-Hyun Lee
Tel. +82-10-3948-4857, Fax. +82-32-865-8130
E-mail : hanbook5000@hotmail.com

는 전시대에 걸친 개괄적 내용을 다루었고,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의 裳에 관한 연구”⁶⁾, “朝鮮朝 치마에 대한 構造的 研究”⁷⁾, “裳과 裙에 관한 연구 - 統一新羅時代까지”⁸⁾, “朝鮮朝 치마 再考 - 16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⁹⁾, “고려시대 여인들의 襦·裳의 형태에 관한 연구”¹⁰⁾, “朝鮮後期 風俗畫에 나타난 치마·저고리에 관한 研究”¹¹⁾는 특정 시기를 잡아 집중 연구한 것이다. 위 논문들에서 착용 실루엣에 관하여 조금씩 언급된 부분도 없지 않으나 독립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한복치마를 고찰한 뒤 역사 속 한민족의 다양한 치마의 종류 및 착용모습을 조사하여 실루엣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미적 특징 및 그 변화의 형성요인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치마의 착용법은 20세기 초에 현재와 같은 실루엣과 착용법으로 정착된 이래 민속복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는 치마의 범위를 고분벽화를 통하여 치마 착장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고구려 시대부터 사진기록으로 남아 있는 20세기 초까지의 여성용 치마로 제한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紐의(紐衣)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의복의 기원을 살핀 뒤에 현대 한국 전통 치마의 착용 형태와 복식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한국 전통 치마의 종류 및 형태를 고찰함에 있어 왕조변천에 의한 일반적 시대구분, 즉[삼국, 남국신라, 고려, 조선]순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이는 의복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이 독립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왕조별 역사서나 문집 등의 한 부분에서 언급되고 이에 따라 용어상의 문제 등이 파생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전통 치마의 착용 실루엣 유형을 원뿔대형 실루엣(Tent Silhouette), 원통형 실루엣(Cylinder Silhouette), 종형 실루엣(Bell Silhouette), 항아리형 실루엣(Barrel Silhouette)으로 나누고 각 실루엣에 따른 시대구분을 하였다. 실루엣 유형 분류의 기준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단둘레의 비례에 의해 형성되는 조형성에 두었다. 넷째, 실루엣 유형 분류를 통하여 고구려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6기로 나누고, 한국 전통 치마의 실루엣 변천과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치마길이, 치마폭, 주름, 재질, 속옷, 착용법 등으로 고찰했다.

II. 한국 전통 치마의 형성과 복식미

한국 전통 치마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北史』高麗條에 <<부인의 치마와 저고리에 선을 달았다. ‘婦人裙襦加襪’>>고 있으며 그 구체적 모습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된다. 당시 이미 상당한 수준의 복식생활을 하였으며, 치마는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韓民族 여자 치마의 착장 시기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한복 치마의 기원에 대하여 자생론(自生論), 중국유입론(中國流入論), 남방유입론(南方流入論)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민족과 관련이 깊은 파지릭 문화권에서 여성용 모직 치마가 출토되고 북방계에서도 이미 청동기시대 치마가 있었으며, 같은 東夷族이라고 하는 은(殷)에서도 치마 착용이 확인되므로, 치마가 우리 민족에서 발생하여 기본복으로 착용되었으리라는 자생론이 타당하며 특히 주름치마는 북방계 의복이라 한다.¹²⁾ 한복 치마가 개방형이기는 하나 남방계의 치마 착용과는 그 목적과 치마 형태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남방유입론으로 보기 어렵고, 중국 유입론의 경우 양국의 치마의 형태와 착용범위 및 전래 시기 등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먼저이고 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치마의 일반적 기원론을 살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런데 치마 형태, 즉 허리에 두르는 의복은 곧 의복의 초기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옷에 관한 기원의 문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의복 착용의 기원에 관해서 정숙성이론, 비정숙성이론, 신체보호이론, 장식성이론 등이 있어 각 사회마다 적용이 다르나 가장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의복의 모습은 紐衣로 볼 수 있으며 차츰 밑가리개, 腰布, 腰卷으로 발달하다가 속옷 내지는 바지, 스커트 등으로 변모하여 “衣” 문화사의 기본이 되었다.¹³⁾ 동남아시아의 sarong의 경우, 포(布) 그대로 감는 腰卷, 다음으로 활동에 편리한 筒型이 만들어져 현재는 함께 사용되는데 일상복으로는 통형을 입다가도 외출용으로는 요권의틀 입는다. 요권의에는 착용자에 의해 완성되는 고도의 미학적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¹⁴⁾ 한국 전통 치마는 이미 주름과 말기 및 끈이 봉제가 되어 편리성 및 간편성을 갖추면서도 요권의 형식의 두르는 방식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미학적 요소를 가지는 형태의 의복이다.

미의 보편적 원리를 의복에 적용한 것이 服飾美學이다. 복식이 미적 표현의 장르로 인정받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짧은 연구 기간과 함께 응용예술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아직 체계적인 제통이 서 있지 않다. 그럼에도 미술이나 조각 등의 순수예술과 마찬가지로 복식도 역시 시각적 현상으로써 미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미의 보편적 원리가 존재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선, 색채, 재질 등의 조형성 분석과 한 사회안에서의 그 현상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응용예술인 복식의 아름다움을 논함에 있어 인간과의 관계 탐구가 또한 중요하다. 사람들은 옷을 고를 때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옷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른다. 즉 생활이라는 필요에서 발달한 복식은 인간에게 입혀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복식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평면구성의 의복인 한복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 전통 치마의 일반적인 특징은 평면구성이라는 것이다. 미리 인체의 곡선과 치수에 맞추어 인체와 같은 형으로 제작되는 입체형 의복이 아니라 평면으로 마름질되고 봉제된 후에 인체에 둘러져서 그 완전한 형을 갖추게 된다. 그 재단법을 보아도 역시 직선으로 마름질되고 봉제된다. 그러나 인체에 입혀질 때는 인체의 선을 따라 유연한 곡선의 느낌을 형성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 울동감을 형성한다. 즉, 착용에 의해 유동적인 곡선의 미가 생겨난다. 가슴부위의 잔잔한 주름은 입체감과 약간의 부피감을 형성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더한다. 착용 시에 그 자락 처리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와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착용법이 이미 고정된 일반의 스커트형에 비해 착용자의 미의식을 나타내기에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동남아시아의 치마 형태인 사롱(sarong)의 경우 한 폭을 둘러 입는 방식과 통형의 방식이 있는데 편리한 통형을 일상복으로 입는 여성도 외출 시에는 布 그대로 감는 사롱(sarong)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즉 직물 바이어스가 늘어남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감을 수 있고 걷는 모습을 보면 그 자태가 더욱 늘씬하여 하반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⁵⁾ 요컨

의 형태인 한국 전통 치마는 뒤가 트여 있어 열려 있다는 개방성과 함께 둘러 가리는 폐쇄성을 동시에 나타내어 고도로 은폐된 노출의 미학을 형성하는 동시에 에로틱함의 암시적 형태이다. 이러한 미적 특징 이외에도 한국 전통 치마의 뒤트임은 현재 까지도 이어지는 좌식의 온돌문화라는 한민족의 독특한 생활방식에 의한 착용법이기도 하다.

복식의 주된 소재인 직물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독특한 미적표현을 가지는데 직물의 종류나 직조에 따라 정교하고도 거칠면서도 소박한 표현성을 갖기도 하고 섬세한 표현성을 갖기도 한다. 여름철 한복감의 백미인 올이 고운 세모시는 투명한 백자에 비유될 수 있겠다. 생산과정에서 재료의 특성을 살리고 인위적인 장식성이 배재된 백자는 색이나 형태에 있어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 스스로 감식적이며 은근하고 섬려한 미적 표현을 갖는다. 이러한 백자의 장식성은 모시의 섬세하고 하얗고 가볍고 투명한 성격들과 상통하며, 그 자체가 한복의 특징에서 표현되는 아름다움으로 표현된다. 모시의 뽀뽀한 태는 모시옷을 착용하는 착용자의 체형이 밋더라도 옷매무시가 그것을 은폐해 주고, 투명한 직물로 인해 인체선이 어렴풋이 드러나게 되어 약간의 노출미도 충족시켜주니 특이한 옷감이라 하겠다.¹⁶⁾ 전통적으로 쓰여 온 모시 외에 현대 한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옷감은 사철깨끼라고 하는 얇은 사 종류인데 그 재질감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아래가 넓게 퍼지는 실루엣을 형성한다. 이처럼 계절에 관계없는 얇은 옷감의 선호는 전통한복의 예복화와 난방시설의 발달로 인한 계절 옷감의 퇴보현상이다.

III. 한국 전통 치마의 종류 및 형태

직물을 주된 소재로 사용하며 유행에 민감한 의복의 특성상 복식의 연구는 많은 부분을 문헌자료에 의지하게 된다. 왕조별 역사서이거나 문집 등에서 발췌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용어상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치마의 종류는 왕조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삼국시대 치마는 한자인 裳·裙으로 표기되며 발음은 알 수 없다. 釋名에 裳은 裙의 원형이고 군은 상보다 裙幅을 더해 미화시킨 것이라 하는데 실

제로 여성의 치마에는 상보다는 군이 더 많이 쓰이고 남성의 치마는 모두 상으로 표시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치마 각각의 구체적 명칭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편의상 치마의 형태에 따라 주름(pleats)치마, 색동치마, 주름 없는(non pleats) 치마로 일차 분류하고 다시 치마길이, 가선의 유무 및 가선의 수, 주름 폭, 색동의 수 등으로 세분한다. 다만 주름 없는 치마는 4C, 특히 안악3호분에 집중되어 있고 특수 목적의 의복이며 특히 이민족 여성이거나 중국식 의복을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에서는 법흥왕(514~540)대까지도 夷俗을 따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황남동 토용이 고구려 고분벽화와 같이 주름치마를 착용하고 있어 이속이 고구려식의 의복제도임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의 興德王 服飾禁制에 치마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상과 내상이 있다. 표상은 옆선이 절개되거나 내상을 보이게 하는 짧은 치마로 곁에 입는 치마, 즉 저고리 위에 입는 唐식의 치마이다. 절개된 치마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甫老와 전행옷치마 등과의 연계성을 제시할 수 있다. 고구려 하층 여인의 無裳의 전통이 흥덕왕 복식금제의 4두품녀 이하의 無內裳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내상과 내의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국속의 치마·저고리 형태로 볼 국사 부근 출토 토용의 차림이 이에 해당한다.

『고려도경』에 白苧黃裳·黃絹裳·繪繡紅裳·苧裳·旋裙¹⁷⁾, 『삼국사기』에 大裙¹⁸⁾이라 표기되었는데 백저황상, 황견상, 회수홍상, 저상은 다만 상에 色名과 材質名을 더한 것이다. 旋裙이 송대의 말타기에 편리하도록 양변, 앞뒤를 터놓은 선군¹⁹⁾과 같은 것이라면 전대의 표상에 이어지고 조선의 甫老 및 전행옷치마로의 연계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旋의 뜻(돌다, 되돌아오다)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자락치마로 볼 수도 있다.

조선에 이르면 赤尙, 甫老, 초마, 추마, 치마 등이 새로이 등장하고, 그 종류도 다양화·세분화된다. 편의상 제작방법, 착장목적, 착장방식(거들치마, 주릿대치마)으로 일차 나누었고, 제작방법에 따라서 봉제형식(홀치마, 겹치마, 솜치마, 누비치마), 길이(긴치마, 자근치마, 두루치), 손질방법(쟁치마, 생풀치마, 잇치마), 특수형(가죽치마, 하단 블라우징 치마, 상단중앙 블라우징 치마, 상단양옆 다투치마, 도련치마), 착장목적에 따라서 예장목적(보로, 스란치마, 대란치마, 옷치마, 민웃치마, 전행웃치마), 친의목적(무지기치마, 대습치마), 기타목적(말군, 행주치마, 쓰개치마, 휘건치마, 세수치마)으로 세분된다.

IV. 한국 전통 치마의 착용 실루엣 유형

의복의 실루엣과 건축과의, 혹은 경제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있듯이 실루엣은 시대의 한 반영이다. 한국 복식사에서 치마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분벽화를 남긴 고구려(4C)에서 사진기록이 남아 있는 1930년까지 한복치마의 착용모습을 허리·엉덩이·밑단의 둘레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크게 4가지(원뿔대형, 원통형, 종형, 항아리형) 실루엣이 각 시기마다 반복되거나 새로 등장하였다. <표1>에서처럼 좁은 말기부분과 넓은 밑단을 직선(혹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으로 연결하는 형태를 원뿔대형, 위·아래 둘레에 큰 차이 없이 엉덩이 둘레에 맞추어 직선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원통형, 넓은 밑단에 맞추어 말기에서부터 곡선으

<표1> 치마 착장 실루엣 유형

원뿔대형		원통형	종형	항아리형	
제1형	제2형			제1형	제2형
					

로 퍼진 형태를 중형, 위는 중형과 같으나 아래쪽이 좁아지는 형태를 향아리형으로 분류하였다. 원뿔대형과 향아리형은 각각 다시 2형으로 세분하였다. 원뿔대 제1형은 완전한 사선을 형성하고 제2형은 아래쪽이 약간 불룩한 약간의 굴곡이 있다. 향아리 제1형은 밑단이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이고 향아리 제2형은 밑단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1. 원뿔대형 실루엣 (Tent Silhouette)

1) 제1형

【말기둘레 : 밑단둘레】가 적어도【1 : 2이상】이고, 말기와 밑단이 사선의 윤곽선으로 연결되는 실루엣<표2>으로 서양복의 Tent Silhouette에 해당한다. 원뿔형 실루엣은 삼국시대(5C~6C)와 조선말(19C말~20C초)에 나타났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의 치마는 주름(pleats)치마, 색동치마, 주름 없는(non pleats)치마로 대별되는데 주름치마와 색동치마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형태와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주름 없는 치마는 4C 고분인 안악3호분과 감신총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주름 없는 치마를 제외한 주름치마와 색동치마의 실루엣은 모두,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원뿔대형 실루엣인데 특히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다. 일례로 한국, 중국, 일본의 삼국에 모두 나타나는 색동치마의 경우 중국<그림1>이나 일본<그림2>의 유연한 실루엣과는 달리 한국<그

림3>의 치마는 딱딱한 직선적 실루엣으로 이후의 한복치마의 곡선미와도 대비된다. 이러한 특징은 플리츠형 주름과 뻣뻣한(stiffness) 재질감에 의한 시각적 효과로 보인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뾰족한 봉우리와 깊은 계곡의 산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나무 한 두 그루만이 자라는 척박한 모습이다. 중국의 사서에 <<고구려인들은 성질이 포악하고 약탈하기를 좋아하며...>>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극적 대체였으며 국경을 마주한 중국의 입장에서 더욱 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고구려의 주 활동무대였던 지역이 다소 척박한 산악지대로 의복 속에 그 산하의 모습과 고구려인의 기상이 녹아든 듯 하다.

19C말~20C초에 원뿔대형 실루엣이 다시 등장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 의 치마보다는 한결 부드러운 느낌이다<표2>. 이는 주름의 구성법에 의한 차이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는 플리츠 주름이 허리에서 밑단까지 길게 잡혀 있어 외곽선과 내선 모두 직선적 느낌이 강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허리부분에만 플리츠 주름을 잡아 주름 아래 부분은 착장자의 신체선에 따라 유연한 선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안에 입은 속옷에 의해 밑단은 넓게 퍼진다.

2) 제2형

주로 통일신라시기 나타난 실루엣으로 타 논문에서는 H 라인(본 논문의 원통형 실루엣)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표2>의 원통형 실루엣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아랫부분이 조금 불룩하게 오그라드는 형태로 다소 곡선적인 변형된 원뿔대형이다.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고구려의 장미(壯美)와 백제의 우미(優美)를 받아들여 우미가 우위에 선 장미와 우미의 혼합 문화를 만들어 낸 통일신라의 문화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황남동 토용을 보면 고구려벽화와 같이 엉덩이를 가리는 길이의 저고리 아래에 주름치마를 입었는데 주름의 폭이 넓고 둔부에 약간의 불룩감이 느껴진다. 신라는 위치상 고구려에 비하여 기후가 따뜻하므로 얇은 재질을 사용하여 같은 주름치마라도 조금 부드러운 실루엣을 형성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1>
중국의 색동치마.
中國五百年 女性服飾史, p.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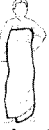



<그림2>
일본의 색동치마.
壁畫古墳-飛鳥高松塚, p.2



<그림3>
수산리고분 귀부인.
韓國美術全集 (4) 壁畫, p.29

〈표2〉 치마 착장 실루엣 유형 분류

		원꼴대형		원통형	총형	항아리형	
		제1형	제2형			제1형	제2형
고구려	4C ~5C	 〈그림4〉〈그림5〉					
	7C		 〈그림6〉				
남국신라	8C		 〈그림7〉				
고려	14C 1332 ~ 1398			 〈그림8〉			
	1341 ~ 1401			 〈그림9〉			
조선 제1기	14C말 ~ 15C 1332 ~ 1398				 〈그림10〉		
	1432 ~ 1464			 〈그림11〉			
	16C 1585			 〈그림12〉			
	17C 1629			 〈그림13〉			

	원플리형		원통형	종형	항아리형	
	제1형	제2형			제1형	제2형
조선제 1기 1624 ~ 1649			 <그림13>			
조선제 2기 18C중 ~ 19C중 김희겸 1748 김홍도 (1745 ~ 1814)				 <그림15>		
				 <그림16>	 <그림17>	
				 <그림18>	 <그림19>	 <그림20>
				 <그림21>	 <그림22>	 <그림23>
				 <그림24>	 <그림25>	 <그림26>
조선제 3기 19C말 ~ 20C초 1890 ~ 1930	 <그림27>		 <그림28>	 <그림29>		
			 <그림30>	 <그림31>		

<그림4> 쌍영총 차마인물도(車馬人物圖). 韓國美術全集 4, p.57

<그림5> 수산리고분 귀부인. 韓國美術全集 (4) 壁畵, p.29

<그림6> 황성동 출토 토용. 신라인의 무덤, p.103

<그림7> 용강동 토용. 토우, p.99

<그림8> 밀양 박익(1332-1398) 묘 벽화. 한국일보 2001년 9월 22일. 문화종합면기사.

<그림9> 조반(1341-1401) 부인상. 韓國의 美 20, p.144

<그림10> 하연(1376-1453) 부인상. 韓國의 복식문화, p.450

- <그림11> 무관 정부(1432-1464) 부인. 한국의 복식 문화, p.324
 <그림12> 선조기영회도(宣祖耆英會圖). 韓國의 美 19, p.24
 <그림13> 남치기회회도(南池耆老會圖). 韓國의 美 19, p.23
 <그림14> 성청 직공도(星淸 職工圖) 조선 관직자 부녀. 한국의 복식문화, p.324
 <그림15> 석천한유(石泉閑遊). 韓國의 美 20, p.62
 <그림16> 부벽루연회도(浮碧樓宴會圖). 韓國의 美 21, p.145
 <그림17> 연광정연회도(練光亭宴會圖). 韓國의 美 21, p.150
 <그림18> 기방무사(妓房無事). 韓國의 美 19, p.152
 <그림19> 남량만홍(納涼漫興). 濶松文華, p.64

- <그림20> 상춘야흥(賞春野興). 濶松文華, p.64
 <그림21> 주유정강(舟遊淸江). 韓國의 美 19, p.148
 <그림22> 미인도. 韓國의 美 20, p.83
 <그림23> 전모를 쓴 여인. 한국의 풍속화, p.337
 <그림24> 어물장수. 韓國의 美 19, p.338
 <그림25> 기녀도(妓女圖). 한국의 풍속화, p.394
 <그림26> 문종심사(聞鍾尋寺). 濶松文華, p.68
 <그림27> 사진 1. 민족의 사진첩 Ⅲ, p.77
 <그림28> 주릿대치마. <http://myhome.naver.com> 자료검색일. (2001. 12)
 <그림29> 운낭자상(雲娘子像). 韓國의 美 20, p.89
 <그림30> 사진 2. <http://myhome.naver.com> 자료검색일. (2001. 12)
 <그림31> 사진 3.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p.170

2. 원통형 실루엣 (Cylinder Silhouette)

치마의 엉덩이 둘레에 맞추어 위·아래 부분 둘레의 큰 차이 없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서양복의 Cylinder Silhouette에 해당한다. 특별한 속옷의 착용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의 윤곽에 맞추어지는 실루엣으로 서양복의 타이트 스커트처럼 일종의 한국적 클래식이라 할 수 있다. 그 착장과 활동의 편리함으로 미루어 원통형 실루엣 시기의 여성은 다음에 나오는 종형 및 항아리형 실루엣 시기의 여성들에 비해 미적 조형성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원통형 실루엣은 14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다시 한번 나타난다<표2>.

원통형 실루엣은 몸을 구속하지 않는 편안한 실루엣으로 이 시기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실제로 고려에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재산분할권 및 결혼과 이혼의 자유가 있었으며 바깥활동이 자유로웠다고 한다. 유교적 가치체계가 국가이념으로는 자리 잡았으나 사대부의 생활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조선 초까지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었는데 일례로 말군의 착용을 들 수 있다. 말군은 일정 신분 이상의 여성에게만 허락되던 승마복이었는데 가례도감의궤의 왕비복식을 보면 속종인현후(1681)까지만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사라졌다. 즉 적어도 1681년까지는 왕비도 말군을 착용하고 말을 탔다.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의 자료 중 치마를 저고리 위에 입는 방식과 저고리 아래 입는 방식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연대추정이 가

능한 자료가 많지 않아 이 두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났는지, 시대 차에 의한 변화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종형 실루엣 (Bell Silhouette)

【말기둘레 : 엉덩이둘레】가【1 : 2이상】,【엉덩이둘레 : 밑단둘레】가【1 : 1 혹은 1이상】정도로 말기와 밑단이 부드러운 곡선의 윤곽선으로 연결되는 실루엣으로 서양복의 Bell Silhouette에 해당한다. 종형 실루엣은 여말 선조 생존하였던 하연(1376~1453) 부인상에서 처음 등장하고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나타난다<표2>.

타 실루엣에 비해 속옷의 착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실루엣으로, 다양한 여성용 속옷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32>는 여러 개의 속바지 위에



<그림32>
오함무지기 착장.
2001년 극단 연우
“황진이” 공연



<그림33>
무지기 착장 실루엣.
2001년 극단 연우
“황진이” 공연

무지기를, <그림33>은 <그림32> 위에 폭 440cm 정도의 치마를 고중·착용한 모습이다. 가는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를 강조하는 실루엣이다.

4. 향아리형 실루엣 (Barrel Silhouette)

속옷 착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은 종형 실루엣과 같으나 착용 시 밑단이 좁아져 엉덩이 부위가 더욱 확대·과장되는 형태로 서양복의 Barrel Silhouette에 해당한다. 향아리형 실루엣은 다시 2형태로 나누었다. 제1형은 밑단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로 밑단의 둘레가 엉덩이부분과 거의 같거나 혹은 더 넓다. 제2형은 밑단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형태로 엉덩이부분의 둘레가 가장 넓다<표1>.

18~19세기 제1형과 제2형이 함께 나타나는데 가장 곡선적이며 여체의 선을 강조한다. 이는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사회체제와 지배이념이 흔들리면서 종전에 중시되던 대의명분 대신 실용적 학풍이 유행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실루엣 변천과 형성요인

이번 장에서는 앞장에서 고찰한 한복치마의 실루엣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실루엣 변천에 따라 6기【① 고구려(5C~6C), ② 남국신라(7C~8C), ③ 고려(14C), ④ 조선 제1기(14C말~17C중), ⑤ 조선 제2기(18C중~19C중), ⑥ 조선 제3기(19C말~20C초)】로 나누고, 각각의 실루엣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치마길이, 치마폭, 주름, 재질, 속옷 등을 중심으로 살폈다.

치마 실루엣을 중심으로 한 시대구분의 결과 고려까지는 대체로 왕조의 교체기와 동일하나 조선은 다시 3기로 나누어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왕조의 지속시기가 250년 정도인데 반해 500년을 지속한 조선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즉 조선 제2기로 잡은 18C~19C는 실학적 학풍이 대두된 문화적 중흥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며, 조선 제3기로 잡은 19C말~20C초는 조선왕조는 명맥만 유지

하고 있을 뿐 사실상 외세의 영향에 크게 좌지우지 되던 시기이다.

1. 고구려(5C~6C)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원뿔대 제1형 실루엣이 최초로 등장한다. 벽화 속의 치마를 보면 주름(pleats) 치마, 색동치마, 주름 없는(non pleats) 치마로 대별되는데 주름 없는 치마는 우선 그 빈도가 적게 나타나며 중국식 의복으로 보여 배제하고 고구려 고유 의복으로 보이는 주름치마와 색동치마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표3>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치마 착용 모습 중 머리부터 치마 끝까지 확인 가능한 입상 인물 22명의 치마 치수표이다. 귀부인의 치마길이는 모두 바닥까지의 긴 길이지만 시녀의 치마길이는 바닥과 발목길이가 혼재된다. 귀부인의 치마가 시녀의 치마보다 치마길이는 더 길고 밑단둘레는 더 넓다. 귀부인의 저고리 길이가 시녀의 저고리 길이보다 더 길다. 무용총의 무용수의 치마는 발목까지의 짧은 치마임에도 밑단너비는 6 정도로 귀부인보다도 넓은데 이는 무용이라는 특수 목적 때문이라 생각된다. 주름과 색동의 수는 귀부인의 것이 시녀의 것보다 많다.

저고리의 단으로부터 치마의 끝까지 길게 주름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아 현대의 치마처럼 허리말기에 주름을 고정시켜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밈 처리가 나타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의복 발달 단계상 통형치마의 등장은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전국시대 胡女상에 옆트임 주름치마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구려의 경우 이미 온돌의 좌식생활을 하였으므로 현재와 같은 뒤트임치마로 보는 편이 옳다. 앞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구려의 치마는 당시대의 중국이나 일본의 치마보다 직선적 특징이 강한데 이는 재질감에서 오는 특징으로 보인다. 즉 폴리스 주름을 흐트리지 않을 만큼 뻣뻣한(stiffness) 재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서에 고구려에서 오채금과 베를 직조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치마 착용의 모습 외에도 치마를 입지 않은 바지·저고리만의 모습이나 발목이 드러나는 짧은 치마 등이 보이는데 이는 고구려에서의 치마가 조

〈표3〉 고구려 고분벽화의 치마 치수

고분	신분	총장	저고리 길이	치마길이	허리둘레	밑단둘레	주름 갯수	색동 갯수
덕흥리 고분 408년	시녀 1	8.5	4.5	5.5 / 발목	1.5	3.7		5
	시녀 2	8	4.5	5 / 발목	1.5			4
	시녀 3	8.5	4.5	5.5 / 발목	1.5	3		3
	시녀 4	8	4.4	5 / 발목	1.5	2.5		3
	시녀 5	7.7	4.5	5 / 발목	1.5	3	6	
	시녀 6	7.5	4	5 / 발목	1.5	3	6	
	시녀 7	8.3	4.5	5.5 / 발목	1.5	3	10	
장천1호 고분5C 중반	귀부인(大)	8.5	6.5	6 / 바닥	1.5	6.5		
	시녀(小)	8.5	6	5.5 / 발목	1.5	5		
수산리 고분 5C	귀부인(大)	8.5	6.5	6 / 바닥	1.5	5.5		9
	시녀(小)	8	6.5	5.5 / 바닥	1.5	5	15	
쌍영총 5C말	귀부인 1(大)	8.7	6	5.5 / 바닥	2	5	28	
	시녀 1(小)	8.5	5	5.5 / 바닥	2	5		
	시녀 2(小)	9	5.5	6 / 바닥	1.5	4.5	16	
	귀부인 2(大)	9	5.5	6 / 바닥	1.5	5.5	33	
	귀부인 3(大)	9	5.5	6 / 바닥	1.5	5.5	26	
	귀부인 4(大)	9	5.5	6 / 바닥	1.5	5.5	36	
	시녀 3(小)	9	5	4 / 바닥	1.5	4.5	16	
무용총 6C	무용수 1	7.5	6.8	5 / 발목	1.5	6	30	
	무용수 2	7.5	6.8	5.7 / 발목	1.5	6	31	
	시녀	7.5	6.8	5 / 발목	1.5	4.7	28	
	시녀	7.5	6.8	5 / 발목	1.5	4.7		
총 계								22명

(*가려지는 부분은 임의로 추정하였으므로 다소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각각은 비율치수이다.)

선시대의 치마와 같은 의미의 여성의 겹옷이 아니라 상의의 포에 대응하는 하의용 예복이다.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나는 바지는 속바지가 아니라 겹옷으로 보인다. 바닥까지 닿는 긴 주름치마나 색동 치마 안에도 따로 속옷을 착용한 것이 아니라 겹옷인 대구고(大口袴) 등을 입었으리라 추측된다. 치마 형태 중 다수를 차지하는 주름치마에 관해서 회화 상의 기법으로 보는 견해²⁰⁾도 있으나 이미 당시에 다양한 비단을 의료로 입었을 만큼 의생활이 발달해 있었으므로 충분히 제작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백제와 신라의 고분에서 이미 근세까지 사용되던 것과 같은 형태의 다리미가 발견되었음이 이것을 더욱 뒷받침한다. 각저총의 얇은 여인의 치마를 보면 주름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물론 회화 상의 기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주름 고정을 위하여 풀을 먹이는 방법과 함께 조선시대 철릭의 주름 구성을 위한 징겨주기 바느질법의 사용과 누비의 회화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남국신라(7C~8C)

황성동 고분(7세기)과 용강동 고분(8세기) 경주 출토 토용을 통하여 이 시기 원뿔대 제2형 실루엣의 치마착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동 고분의 여인상은 초당(初唐)의 가녀린 양식을, 용강동 고분의 여인상은 성당(盛唐)의 풍만한 양식을 취한다.

치마길이는 모두 바닥까지 닿는 긴 길이고 겹옷으로 보이는 표상의 치마폭은 그다지 넓지 않으며 겨드랑이에서 시작된다. 앞·뒤의 양옆에 주름을 표시한 선이 음각되어 주름이 말기 전체에 잡힌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 잡힌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상의 안에는 내상으로 폭넓은 치마를 허리선에 맞추어 입음으로 위는 가슴 둘레선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밑단에서 부룩하게 오므라드는 원뿔대 제2형 실루엣이 만들어진다. 긴장과 여유로 이어지는 리듬감이 느껴진다. 이러한 유연한 곡선을

만들기 위해 걸감으로는 얇고 부드러운(drape) 재질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흥덕왕 복식금제에 많은 비단명칭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라'는 얇은 비단을 일컫는다. 여자바지(袴)에 관한 금제항목을 보면 표상보다도 좋은 옷감이 사용되어 전 시대처럼 바지가 여전히 걸옷으로 입혀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경주 불국사 부근에서 발굴된 토용은 치마를 긴 저고리 안에 입고 있어 당복의 영향을 받은 차림새와 국속의 차림새가 함께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 고려(14C)

연대가 확실한 박익 묘 출토 벽화와 조반부인상에 의하여 14세기로 한정하였으나 이 외에 연대가 불확실한 고려미인상, 수월관음도, 방배동 출토 목우 등 고려시대의 모든 자료가 원통형 실루엣을 이룬다.

박익 묘 출토 벽화 시녀들의 치마<그림8>는 발이 약간 보이는 길이이고 주름의 형태에 의해 치마폭은 그다지 넓지 않으며 역시 부드러운(drape) 재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저고리 아래로 치마와 다른 색의 긴 주 줄의 끈이 보이는데 이것이 수부인<그림34><그림35>의 끈처리와 같아서 겨드랑이에서의 치마 착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수월관음도 여인<그림36>의 벌어진 저고리 사이로 치마 말기가 보이지 않아 또한 치마를 겨드랑이에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반 부인의 치마는 좌상으로 치마길이는 알 수 없으나 허리에서 곧게 뻗어 내려간 몇 줄의 주름선에 의해 조선 초기 유물치마처럼 말기에만 플리츠 주름을 일정하게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소 두꺼운 재질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4. 조선 제1기(14C말~17C)

조선 제1기 중 연대가 확실한 자료로는 하연(1376~1453) 부인상, 정부(1432~1464) 부인상, 선조기영회도(1585), 남지기로회도(1629), 선조년간(1624~1649) 제작된 성청 직공도(星淸 職工圖) 소재, 조선인 관직자 부녀 등이 있는데 이중 하연 부인상만이 종형실루엣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모



<그림34>
隋 부인.
中國服飾史,
p.128



<그림35>
여복 전시도.
中國服飾史,
p.128



<그림36>
수월관음도.
韓國의 美 19,
p.17

두 원통형 실루엣을 이룬다.

하연 부인상은 좌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역시 좌상인 조반부인의 실루엣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상당히 풍성한 실루엣으로 풍부한 주름의 분량과 느낌 및 착장방법 등을 통하여 종형 실루엣으로 보았다. 바닥까지 닿는 긴 길이의 폭넓은 치마로 말기에 현재와 같은 일정한 너비의 주름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저고리를 먼저 입고 치마를 겹에 착용하였는데 겨드랑이에서 시작되는 말기는 다른 재질이다. 이후 17세기 중기까지의 치마가 원통형 실루엣임에 반해 하연 부인상만이 통형 실루엣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재질감과 착장방식에 의한 차이로 보이며 하연이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임을 감안할 때 신분에 의한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 부인상, 선조기영회도, 남지기로회도, 선조년간 제작된 성청 직공도(星淸 職工圖) 소재, 조선인 관직자 부녀 모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원통형 실루엣이다. 주름의 표현으로 보아 치마폭이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이 시기의 치마 유물의 치마폭이 보통 400cm 내외이고, 600cm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넓은 폭이 사용되었음에도 원통형 실루엣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드레이프성이 큰 재질의 사용이 추측된다.

5. 조선 제2기(18C중~19C중)

조선 제 2기는 전 시대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루엣인 종형 실루엣과 향아리형 실루엣이 등장하는 시기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홍도(1745~1814)와 신윤복(18C 중~19C초)의 풍속화 속 여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실루엣으로 기녀 계급 뿐 아니라 일반 서민과 천민들까지도 둔부를 부풀린 실루엣을 하고 있어 이것이 이 시기의 전반적인 유행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장에서 중형 실루엣은【말기둘레 : 엉덩이둘레】가【1 : 2이상】,【엉덩이둘레 : 밑단둘레】가【1 : 1 혹은 1이상】이고, 향아리형 실루엣은 밑단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로 밑단의 둘레가 엉덩이부분과 거의 같거나 혹은 더 넓은 제1형과 밑단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형태로 엉덩이부분의 둘레가 가장 넓은 제2형으로 정의하였다. <표4>는 연대(18C중~19C중)와 치수측정이 가능하며 머리에서 치마 끝까지 나타난 입상의 치마 착용 인물상 28명의 치마치수표이다. 전체 28명 중 중형 실루엣이 20명으로 월등히 많은데 착시현상에 의하여 향아리형 실루엣으로 보이는 인물상들이 실제 치수측정에서는 중형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향아리 제1형은 <표2>에서 보듯 모두 자연스럽게 내려뜨려진 치마에서 보인다. 향아리 제2형은 모두 허리에서 치마를 묶어 올린 경우다.

회화와 유물치마를 볼 때 대체적으로 땅에 끌릴 정도의 긴 길이이고 치마폭은 400cm 내외로 넓으며 주름은 2~4cm 정도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엉덩이를 강조한 실루엣 형성을 위해서는 특히 전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속옷의 등장도 필연적이다. 무지기가 대표적인 것으로 실제 기록도 18세기 중기 이후의 문집 등에서 보인다. 회화 속 기녀들의 걸어 올린 치마 아래로 하얀 옷이 조금 보이는데 걸어 올려 착용한 속치마이거나 무릎길이의 너른바지로 생각된다. 이처럼 다양한 속옷류를 여러 벌 껴입음으로 엉덩이를 한껏 부풀린 조형성을 만들어냈다. 특히 향아리형 실루엣의 강조를 위해서 치마를 걸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걸어 올려진 치마 아래로 발목에서 조여지는 넓은 통의 바지가 보인다. 바지유물의 경우 부리둘레가 100cm 내외의 너른바지가 대부분이고, 현재 고쟁이처럼 배래가 둥글고 발목이 좁은 속바지는 주로 19C 말~20C 유물에서 보인다. 회화상의 여인들의 속바지 착용모습을 보면 발목 위로는 상당히 통이 넓으며 발목은 꼭 맞게 조여지는데 발목 뒤쪽의 여

밈부분에서 위로 길게 생기는 주름은 부리가 넓은 바지를 오므릴 때 생기는 주름으로 생각된다. 신윤복의 '단오풍정' 중 목욕하는 여인들을 보면 속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있어 바지부리가 적어도 허벅지둘레 이상이 되어야 함을 입증한다.

신윤복의 회화에 나오는 기녀들의 차림을 보면 저고리가 가슴을 겨우 가릴 만큼 짧아졌고 치마는 허리선에 있어 저고리와 치마 사이를 흰 천으로 가리고 그 묶은 끈을 앞으로 늘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것을 가슴띠라고 하였으나, "년소담청"과 "거문고 줄갈기"의 여인의 뒷모습을 보면 앞에서 묶어 늘인 끈은 치마말기에서 이어지는 치마끈임을 알 수 있다. 유물 치수를 보면 치마말기의 폭이 5cm 내외인데 비해 속바지의 허리 말기 폭은 10cm 내외이다. <그림37>을 보면 속바지의 말기는 가슴 바로 아래까지 올라오고 치마의 말기는 배에 둘러져 있다. 즉 말기 폭이 넓은 속바지를 가슴 아래나 가슴까지 올려 입은 뒤 그 아래쪽에 말기 폭이 좁은 치마를 둘러 입고 그 경계선에 치마 끈을 두른 것이다. 치마색은 다양하더라도 말기는 소재로 하는 관습과 연관 지을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유물의 말기를 보면 현재와 달리 한 겹으로 한 것들이 있는데, 이는 기능성보다는 가는 허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미적 가치가 우선된 현상이다. 2001년 극단 연우의 연극 '황진이'의 공연 당시 말기와 끈 모두 두 겹으로 제작했음에도 열흘 공연 동안 끈이 떨어져 수선을 여러 번 했다. 또한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는 풍성한 중형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아래 속옷을 여러 겹 겹쳐 착용했는데 이때 말기의 중첩으로 인해 허리가 오히려 두껍게 보였다. 이처럼 중첩 착용에 의한 두께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말기는 한 겹으로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석천한유도(1748)의 여인들은 옥색, 짙은 파랑색, 연파랑색, 홍색 등 4여인 모두 다른 색의 치마를 입고 있음에도 말기는 모두 흰색으로 되어 있으며 역시 흰색의 끈을 길게 앞으로 늘어뜨리고 있다. 짧아진 저고리 아래로 흰색의 허리말기가 보이며 길고 넓은 치마가 땅에 끌린다. 약간 둔부가 부풀고 있는 아치까지는 밑단이 넓게 퍼져 있어 둔부를 과장한 중형 실루엣으로 분류하였다.

〈표4〉 18C중~19C중 회화에 나타난 치마 치수

고분	회화명	신분	총장	저고리 길이	치마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단둘레
총형 (20)	석천한유	기녀	8.3	2	6.3+a/바닥	1.3	3.3	5
		기녀	8.8	2.2	6.3+a/바닥	1.4	3.5	4.5
	부벽루 연회도	기녀	7.7	1.6	5.7+a/바닥	1.4	3	3.5
		기녀	7.5				3.5	4
		무희	8				3.5	4.5
		무희	8				3.6	4
		무희	7.5				3	4.5
		무희	7.5				3.5	4
		기녀	7	1.9	5 +a/바닥	1.8	3.5	4
	유행풍속	기녀	7.7	1.5	6 +a/바닥	1.5	4	4.5
	애기엄마	서민	7.7	1.1	5.5+a/바닥		3.7	6.4
	홍루대주	서민	7.9	1.7	4.8+a/무릎위		4.1	4.3
	어물장수	서민	7.5	2.4			3.3	4.1
	월야밀회	기녀	7.7	1.4	4.9+a/무릎아래		3.5	3.8
	이부탑춘	기녀	9	1.3	4.5+a/무릎	1.5	3.5	4
	주유청강	기녀	2		4.5+a/무릎아래		3	5
	야금모행	기녀	8.5	1.3	4.5+a/무릎	1.5	3	3.5
	기방무사	기녀	8.2		4.2+a/무릎		3.3	3.5
	노상탁발	기녀	8.5	1.5	6.5+a/무릎	2.5	3.8	4
	니승연기	기녀	7.7	1.4	4.6+a/무릎아래		3.5	3.8
시녀		7.8	1.4	4.6+a/무릎아래		3.4	3.5	
항아리 제1형 (5)	연광정 연회도	기녀	7.7	2	5.2+a/바닥	2	4	3/4.5
		기녀	8	1.4	6 +a/바닥	1.5	3.6	3.4/4
	미인도	기녀	7.5		5.2+a/바닥	1.5	3.8	3.4/3.5
	남량만홍 기녀도	기녀	8	1.7	5.5+a/바닥	1	3.8	3.5/5.5
서민		7.8	1.3	5.3+a/바닥		3.8	3.5/4.8	
항아리 제2형 (3)	상춘야홍	시녀	7.5	1.5	5.4+a/바닥	1	3	1
	문중심사	시녀	7.3	1.8	4 +a/발목	1.5	4	3
	처녀여인	기녀	8	1.3	4 +a/무릎위		4.2	3.6
총계				28				

(*각기 다른 자세의 인물들을 측정하였으므로 기준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길이 항목은 가능한 정면의 중앙을 재도록 하였다.
*너비 항목은 가장 두꺼운 부분으로 하였다.)

6. 조선 제3기(19C말~20C초)



〈그림37〉
端午風情. 韓國의 美 19, p.150

조선 제3기는 <표2>에서 보이듯 다른 시기에 비해 여러 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자의든 타의든 개항기라는 시기적 특성에 맞게 역사상 가장 단기간 동안 많은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했던 당시 상황에 기인한다. 이 시기 주로 나타난 실루엣 유형은 원뿔형 실루엣, 원통형 실루엣, 중형 실루엣이다.

사진자료를 보면 치마의 길이는 여전히 길지만 폭은 다소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유물치마의 폭이 300cm 전후로 줄어들었다. 주름너

비가 1cm 전후로 줄었는데 이는 재봉틀 보급과 치마폭이 좁아진 때문으로 설명된다.

원뿔대형 실루엣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뻣뻣한 재질과 함께 기능적 속치마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 치마로 대습치마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한복치마에서는 전체 플리츠 주름이 들어간 고구려의 치마를 제외하고 드문 실루엣이고 대습치마에 관한 문헌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지 상궁들의 증언에 의해 조선말 왕실에서 입혀진 점 등으로 미루어 이것은 당시 서양복 드레스와 함께 유입된 패턴코트를 한민족의 정서와 좌식생활에 맞게 변형·고안한 것이라 생각된다.

원통형 실루엣은 인체 선을 왜곡시키지 않으므로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나, 같은 원통형 실루엣이라도 <그림28> 같은 경우는 치마로 몸을 꼭 조여 긴장된 직선미를 구현하였다.

종형 실루엣의 “운낭자상”은 치마말기가 가슴 아래까지 높아졌다. 치마말기의 폭이 전시대에 비해 좁은데 이는 치마말기가 가슴까지 올라가고 속바지의 허리말기는 치마 말기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의 미인도는 작자미상으로 그 제작연대를 19세기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역차를 배제한다면 치마말기가 가슴 아래 위치하고 종형의 실루엣인 것으로 보아 그 제작연도를 20세기 초까지로 잡을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한국 복식사에서 치마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분벽화를 남긴 고구려(4C)에서 사진기록이 남아 있는 1930년까지 한복치마의 착장모습을 허리·엉덩이·밑단의 둘레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크게 4가지(원뿔대형, 원통형, 종형, 향아리형) 실루엣이 각 시기마다 반복되거나 새로 등장하였다. <표1>에서처럼 좁은 말기부분과 넓은 밑단을 직선(혹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으로 연결하는 형태를 원뿔대형, 위·아래 둘레에 큰 차이 없이 엉덩이 둘레에 맞추어 직선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원통형, 넓은 밑단에 맞추어 말기에서부터 곡선으로 퍼진 형태를 종형, 위는 종형과 같으나 아래쪽이 좁

아지는 형태를 향아리형으로 분류하였다. 원뿔대형과 향아리형은 각각 다시 2형으로 세분하였다. 원뿔대 제1형은 완전한 사선을 형성하고 제2형은 아래쪽이 약간 불룩한 약간의 굴곡이 있다. 향아리 제1형은 밑단이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이고 향아리 제2형은 밑단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한국 전통 치마의 실루엣 변천에 따라 6기【① 고구려(5C~6C), ② 통일신라(7C~8C), ③ 고려(14C), ④ 조선 제1기(14C말~17C), ⑤ 조선 제2기(18C중~19C중), ⑥ 조선 제3기(19C말~20C초)】로 나누고, 각각의 실루엣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치마길이, 치마폭, 주름, 재질, 속옷 등을 중심으로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국신라 시대(7C~8C) 원뿔대 제2형 실루엣의 치마길이는 모두 바닥까지 닿는 긴 길이로 겹으로 보이는 표상의 치마폭은 그다지 넓지 않으며 겨드랑이에서 시작된다. 주름이 말기의 일부분에만 잡혀있다. 얇고 드레이프성이 큰 재질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전시대처럼 바지가 여전히 겹옷으로 입혀졌다. 경주 불국사 부근에서 발굴된 토용은 국속의 차림새이다. 고려 시대(14C)의 치마는 모두 원통형 실루엣이다. 박익 묘 출토 벽화 시녀들의 치마는 발이 약간 보이는 길이이고 치마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수월관음도 여인은 치마를 겨드랑이에 착용하였다. 조반 부인의 치마는 현재처럼 말기에만 플리츠 주름을 일정하게 잡고, 다소 두꺼운 재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제1기(14C말~17C)의 하연 부인상은 바닥까지 닿는 긴 길이의 폭넓은 치마로 현재의 치마와 같은 형태이다. 저고리를 먼저 입고 치마를 겹에 착용하였는데 겨드랑이에서 시작되는 말기는 다른 재질이다. 하연 부인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통형 실루엣이다. 치마폭이 상당히 넓게 보이는데, 보통 400cm 내외의 유물 치수가 이를 뒷받침한다. 드레이프성이 큰 재질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제2기(18C중~19C중)에 등장하는 종형 실루엣과 향아리형 실루엣은 새로운 실루엣으로 가는 허리 풍만한 엉덩이를 강조하는데 무지거나 다양한 속바지류 등 다양한 속옷의 중첩착용이 필연적이다. 조선 제3기(19C말~20C초)는 다른 시기에 비해 여러 유형(원뿔대형 실루엣, 원통형 실루엣, 종형 실루엣)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치마의 길이

는 여전히 길지만 폭은 300cm 전후로 줄었다. 특히 원뿔대형 실루엣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습치마와 같은 속치마가 쓰였다.

참고문헌

- 1) 장석향 (1971). 여자치마의 역사적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함옥상 (1973). 우리나라 여자 치마의 時代的 고찰.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9.
- 3) 남윤자, 홍명화 (1989). 치마의 變遷 - 三國時代에서 朝鮮時代까지. 장안논총 9.
- 4) 김미자 (1988).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17.
- 5) 김남정 (2000). 조선시대 치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장미 (1989).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의 裳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유영순 (1992). 朝鮮朝 치마에 대한 構造的 研究. 상지전문대학논문집 22.
- 8) 김희정 (1995). 裳과 裙에 관한 연구 - 統一新羅時代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박성실 (1996). 朝鮮朝 치마 再考 - 16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服飾 30.
- 10) 김문자 (1998). 고려시대 여인들의 襦·裳의 형태에 관한 연구. 服飾 38.
- 11) 윤혜성 (1999). 朝鮮後期 風俗畫에 나타난 치마·저고리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김희정 (1995). 裳과 裙에 관한 연구 - 統一新羅時代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8-33.
- 13) 深作光貞 (1983). 衣의 文化人類學. PHP研究所, pp.41-70.
- 14) 深作光貞 (1983). 衣의 文化人類學. PHP研究所, pp.164-171.
- 15) 深作光貞 (1983). 衣의 文化人類學. PHP研究所, p.166.
- 16) 금기숙 (1987). 朝鮮時代 服飾에 表現된 朝鮮人의 美意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0-192.
- 17)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二十.
- 18)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誌第二 色服.
- 19) 華梅, 박성실 외역 (1992). 중국복식사. 耕春社, p.159.
- 20) 고복남 (1986).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p.174.